

노동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pp.67~10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김우영\*\*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 학력별, 취업형태별로 분석하며, 둘째, 출산과 독립적으로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셋째,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우리에게 명확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최근 세대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프리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남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여성 취업률, 취업지 속성, 동태적 분석

투고일: 2003년 1월 24일, 심사의뢰일: 2월 6일, 심사완료일: 2월 14일

\* 본 논문은 제4회 한국노동패널학술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학술회에서 좋은 논평과 지적을 해주신 김중숙 박사님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kwy@kongju.ac.kr)

## I. 서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2000년 현재 15~64세 사이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8%인 데 비하여 OECD 전체 평균은 61.3%로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유럽연합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금재호, 2001; 안주엽, 2001).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그동안 여성의 학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따라서 여성들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인적자본의 손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현재처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는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2만 달러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주로 가장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Barrow(1999)는 미국에서 취학 이전의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에 30.3%에서 1996년에 62.7%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학 이전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기혼여성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에 41%에서 2001년 49%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49%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1996년 취학 이전의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7%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2001)에 따르면 노인인구 1명당 경제활동인구가 1970년에 11.8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 7.9명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에 5.5명, 2020년에 3.9명, 2030년에는 2.4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 아래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해서 노동력 확보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이유로 노동 수요 측면의 제약과 차별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미비 등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뿐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꼽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 즉 결혼과 동시에 상당수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과 출산 후 혹은 취학 이전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정도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증적 결과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sup>1)</sup> 결혼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춘다는 것이 과연 최근 세대에도 적용되는지, 또 결혼과 출산 전·후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태적 분석은 과정을 중시하며 정태적 분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정태적 분석에서는 나이가 어린 자녀수가 많으면 어머니의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이를 가질 당시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떻게 낮아지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시계열적 정보를 이용하여 결혼과 출산이 실제로 여성의 취업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으며 혼인 여부에 따른 여성의 취업률 변화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출산뿐 아니라 결혼이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왜 선진국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 또는 경제활동참가의 동태적 분석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교육의 실행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나 취업에 관한 최근 횡단면적인 연구로는 황수경(2002), 성지미·차은영(2001), 김순미·이경희·성지미(2000) 등이 있다.

시점을 효과적으로 정하여 혼련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필요하다(Nakamura and Nakamura, 1996).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 학력별, 취업형태별로 분석하며, 다음으로 출산과 독립적으로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부분은 Shapiro and Mott(1994)와 Klerman and Leibowitz(1994) 등이 미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출산 전후의 취업이 현재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를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료의 구축 과정과 기초통계량을 제시하며, 제3장에서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의 변화를, 제4장에서는 출산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의 변화를 각각 그래프를 통하여 설명하며 그래프는 학력, 연령, 취업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된다. 제5장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생애취업기간과 현재 취업확률, 현재 임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6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정책함의를 제시하며, 추가적인 표와 그래프는 부록에 붙인다.

## II. 자료의 구축 및 기초통계

### 1. 자료의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인 1998년 자료이다.<sup>2)</sup>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에서는 모든 응답자에게 15세 이후 일자리 경험에 대하여 묻고 있으며 따라서 각 개인의 15세 이후 취업상태에 대한 회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2)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당시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취업상태를 동태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1998)에서 제공하는 회고적 정보에 의존한다. 원칙적으로 노동패널 1차에서 4차까지의 자료 사용이 가능하나 최근에 이룰수록 표본 손실이 많으며 또 본 연구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취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표본 손실이 가장 적은 1차(1998) 자료를 선택한 것이다. 다만 기혼여성의 현재 취업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1998년이 IMF 직후라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5장의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는 이들 취업정보와 결혼과 출산의 사건을 연결시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은 1998년 현재 연령이 25세 이상이며 54세 이하인 기혼여성으로 적어도 1명의 출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한다. 연령의 하한선을 25세로 정한 것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5세는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며 연령의 상한선을 54세로 정한 것은 여성이 활발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이루어졌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연령 제한 이외에도 결혼시기와 출산시기, 15세 이후의 일자리 경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사람을 제외시킨 3,2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속년수 등 관련 변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여성을 제외한 66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기초통계

<표 1>은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표본의 평균연령은 약 40세이며,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자녀수는 평균 2명, 결혼연령은 25세, 출산연령은 26세로 대체로 결혼한 다음해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을 낮춘다는 것은 <표 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 표본에서 결혼은 취업률을 11.2%point(27.6→16.4), 출산은 취업률을 8.7%point (24.1→15.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세대(25~34세)일수록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출산전이나 출산 후의 취업률 자체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 후, 출산 후의 취업률 하락은 이전 세대 못지 않게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1>만을 본다면 결혼이나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취업률이 25~34세 여성에게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이들 여성에게 있어 출산 후 현재(1998년)까지 기간이 가장 짧고 따라서 이들 여성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려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장의 결혼과 출산 주변의 취업률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 취업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기초통계량

	전 체	25~34세	35~44세	45~54세
연 령	40.229 (7.302)	30.861 (2.482)	39.482 (2.788)	48.995 (2.748)
초등 이하	0.158 (0.365)	0.015 (0.120)	0.101 (0.302)	0.357 (0.479)
중학교	0.212 (0.409)	0.084 (0.278)	0.246 (0.431)	0.270 (0.444)
고등학교	0.472 (0.499)	0.652 (0.477)	0.494 (0.500)	0.292 (0.455)
전문대	0.051 (0.220)	0.095 (0.294)	0.052 (0.223)	0.013 (0.113)
대학 이상	0.107 (0.309)	0.154 (0.361)	0.106 (0.308)	0.068 (0.252)
자녀수	2.102 (0.787)	1.678 (0.592)	2.010 (0.568)	2.582 (0.936)
결혼연령	24.790 (3.066)	25.101 (2.537)	25.072 (3.120)	24.128 (3.277)
출산연령	25.920 (3.185)	26.114 (2.695)	26.185 (3.362)	25.382 (3.232)
결혼 전 취업률	0.276 (0.447)	0.348 (0.477)	0.310 (0.463)	0.166 (0.373)
결혼 후 취업률	0.164 (0.370)	0.197 (0.398)	0.162 (0.368)	0.139 (0.347)
출산 전 취업률	0.241 (0.428)	0.291 (0.454)	0.267 (0.442)	0.164 (0.371)
출산 후 취업률	0.154 (0.361)	0.179 (0.384)	0.142 (0.349)	0.149 (0.357)
현재 취업률	0.435 (0.496)	0.276 (0.447)	0.486 (0.500)	0.492 (0.500)
표본수	3,245(100.0%)	819(25.2%)	1,429(44.0%)	997(30.7%)

주 :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결혼 전은 결혼한 전체, 결혼 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Heckman and Willis(1979), Shapiro and Mott(1994)는 한 기간의 경제활동참여는 미래의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시장 진입의 고정비용(fixed costs of entry) 이론과도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조건부 확률을 통하여 취업 경험의 지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건부 확률의 계산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된다.

<표 2> 결혼,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출산 후의 조건부 취업확률

결혼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전 체	25~34세	35~44세	45~54세
P(결혼후 취업)	결혼전 취업)	41.8	47.0	38.6	41.6
P(결혼후 비취업)	결혼전 비취업)	58.2	53.0	61.4	58.4
P(결혼후 취업)	결혼전 비취업)	6.7	5.1	6.1	8.4
P(결혼후 비취업)	결혼전 비취업)	93.3	94.9	93.9	91.6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전체	25~34세	35~44세	45~54세
P(출산후 취업)	출산전 취업)	51.5	52.1	43.8	68.3
P(출산후 비취업)	출산전 비취업)	48.5	47.9	56.2	31.7
P(출산후 취업)	출산전 비취업)	3.9	4.0	3.4	4.4
P(출산후 비취업)	출산전 비취업)	96.1	96.0	96.6	95.6

주 : 결혼 전은 결혼한 전 해, 결혼 후는 결혼한 다음 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로 임.

<표 2>를 보면 앞서 언급한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결혼 전에 취업한 사람이 결혼 후 취업할 확률(41.8%)이 결혼 전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 후 취업할 확률(6.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취업상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 전 비취업자는 결혼 후에도 비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결혼 전 취업자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한 시점의 경제활동참여(비참여)가 미래의 경제활동참여(비참여)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을 Shaw(1994)는 지속성(persistence)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표 2>를 보면 이러한 지속성은 출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 전후의 취업 지속성(employment persistence)이 25~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P(결혼후 취업/결혼전 취업)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결혼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는 가능성이 젊은 세대에 상대적으로 낮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오히려 45~54세 연령층에서 최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약간 의외의 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이 젊은 층에서보다 오히려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

를 자영업<sup>3)</sup>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45~54세의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형태가 주로 자영업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은 취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세대의 기혼여성의 경우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출산이 취업률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확률을 구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결혼,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출산 후의 조건부 취업확률(임금근로)

결혼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전 체	25~34세	35~44세	45~54세
P(결혼후 취업)	결혼전 취업)	38.0	41.6	35.5	38.1
P(결혼후 비취업)	결혼전 취업)	62.0	58.4	64.5	61.9
P(결혼후 취업)	결혼전 비취업)	1.7	2.6	1.5	1.4
P(결혼후 비취업)	결혼전 비취업)	98.3	97.4	98.5	98.6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전 체	25~34세	35~44세	45~54세
P(출산후 취업)	출산전 취업)	41.7	46.4	35.2	52.7
P(출산후 비취업)	출산전 취업)	58.3	53.6	64.8	47.3
P(출산후 취업)	출산전 비취업)	1.2	1.3	1.1	1.3
P(출산후 비취업)	출산전 비취업)	98.8	98.7	98.9	98.7

<표 4> 결혼,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출산 후의 조건부 취업확률(자영업)

결혼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전 체	25~34세	35~44세	45~54세
P(결혼후 취업)	결혼전 취업)	44.8	60.8	40.4	40.0
P(결혼후 비취업)	결혼전 취업)	55.2	39.2	59.6	60.0
P(결혼후 취업)	결혼전 비취업)	4.4	2.2	4.1	6.6
P(결혼후 비취업)	결혼전 비취업)	95.6	97.8	95.9	93.4
출산 전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		전 체	25~34세	35~44세	45~54세
P(출산후 취업)	출산전 취업)	65.9	66.7	57.5	76.7
P(출산후 비취업)	출산전 취업)	34.1	33.3	42.5	23.3
P(출산후 취업)	출산전 비취업)	2.5	1.3	2.1	3.1
P(출산후 비취업)	출산전 비취업)	97.5	97.6	97.9	96.9

3) 이 논문에서 자영업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영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 예는 Blanchflower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금근로로의 취업만을 국한해서 본 <표 3>을 보면 전체 취업을 대상으로 한 <표 2>의 결과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25~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45~5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 때문에 45~54세에서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가능성은 육아비용일 수 있다. 즉 현재 노년세대가 출산할 당시에는 가족구조가 상대적으로 대가족체제였다. 따라서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비용도 낮았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 세대는 핵가족 중심이며 따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공공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탁아비용도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로는 가능성일 뿐이며 추후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자영업으로의 취업만을 국한해서 본 <표 4>의 결과도 전체 취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나 임금근로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형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P(결혼후 취업/결혼전 취업)이 임금근로일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Ⅲ. 결혼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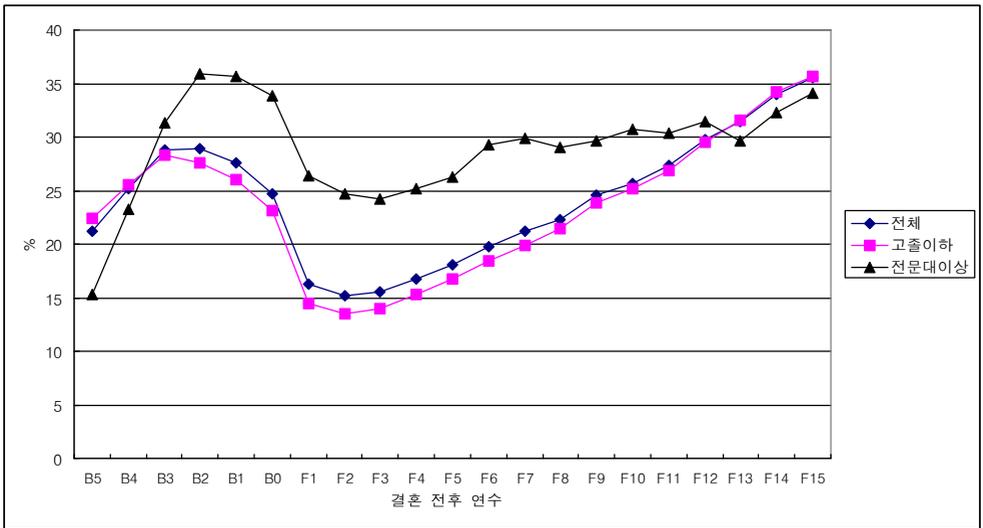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래프를 통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래프는 결혼 5년 전부터 결혼 15년 후까지 20년간의 취업률을 나타내며 또한 학력, 연령(세대)에 따라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할 것이다.<sup>4)</sup>

4) Shapiro and Mott(1994)는 미국의 NLSY를 이용하여 출산 전후 월단위의 취업률을 계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를 회고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월단위로 취업 여부를 추정하기에는 missing이 많이 발생하고 부정확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하 분석에서는 연단위(전일근무로 적어도 2개월 이상 일한 경우)로 취업률을 계산한다.

## 1. 학력별 결혼 전후의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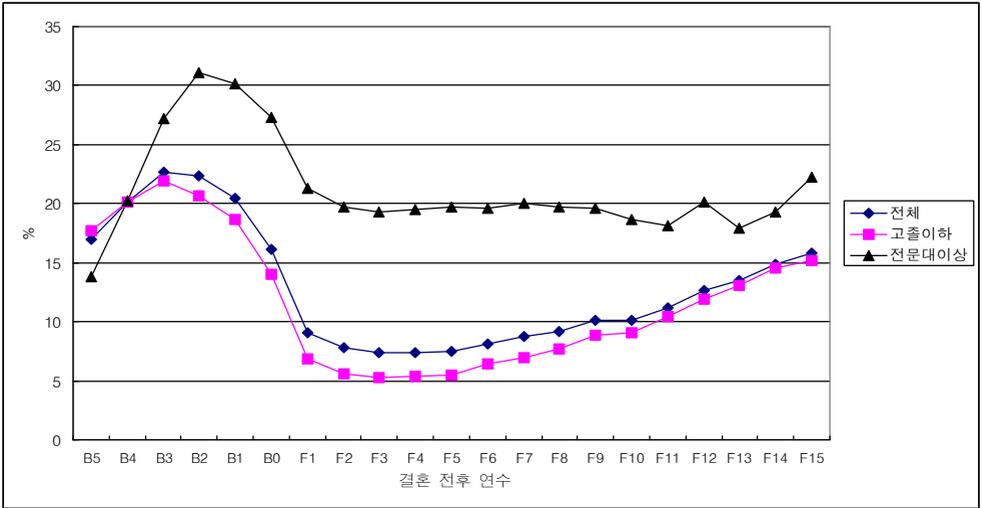
[그림 1]은 결혼 5년 전(B5)부터 결혼 15년 후(F15)까지 20년간의 취업률의 변동을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나 결혼 2년 전에 정점에 달하고 1년 전부터 취업률이 하락하여 결혼 직후(F1) 급강하고 결혼 3년 후부터 취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림 1)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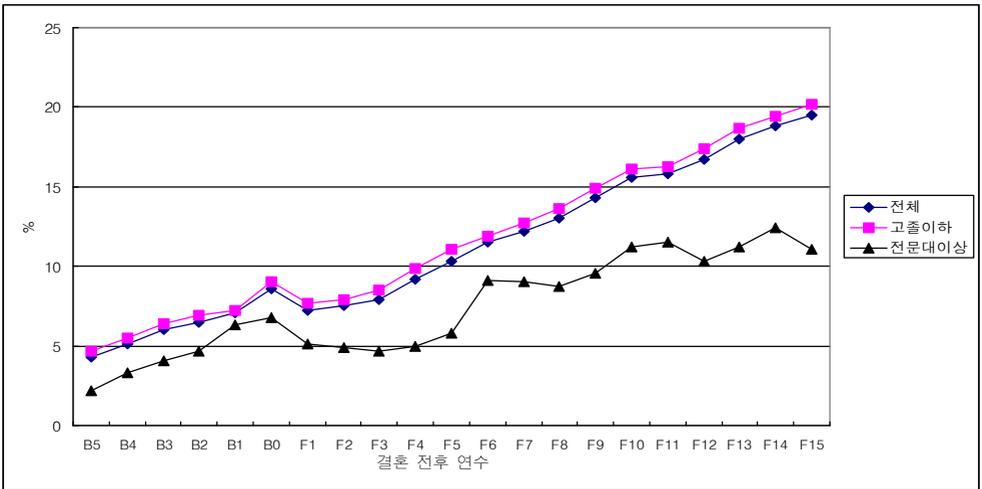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학력별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아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임금근로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나 자영업의 경우는 반대로 고졸 이하인 여성이 전문대 이상의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그림 3)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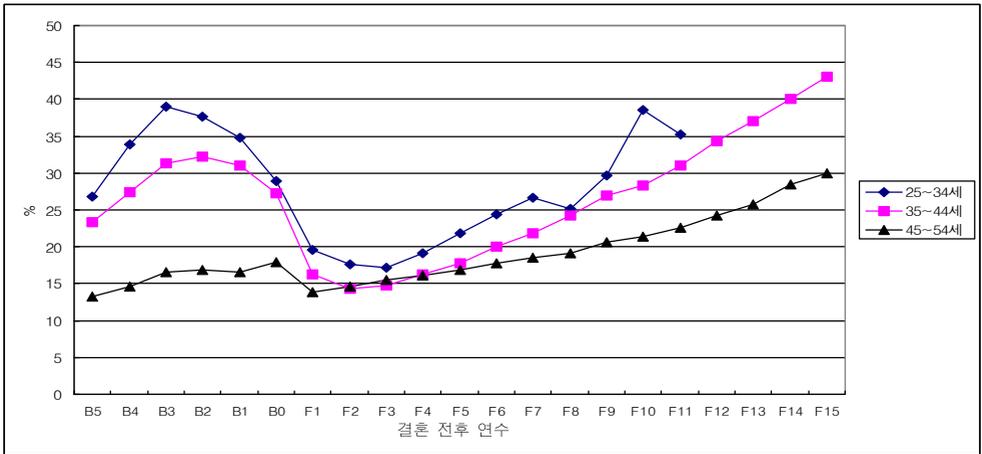
또한 결혼도 임금근로자에게는 취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결혼 직후 다소 취업률이 하락하다가 곧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자영업자의 경우  $P(\text{결혼후 취업}|\text{결혼전 취업})$ 이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있어 결혼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임금근로에 국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 2. 연령별 결혼 전후의 취업률

이제 결혼 전후의 취업률 변화가 연령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령별 취업률은 과거 세대에서 최근 세대로 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최근 세대에게는 약해졌는지를 아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4]에서 [그림 8]까지는 연령별 취업률을 학력과 취업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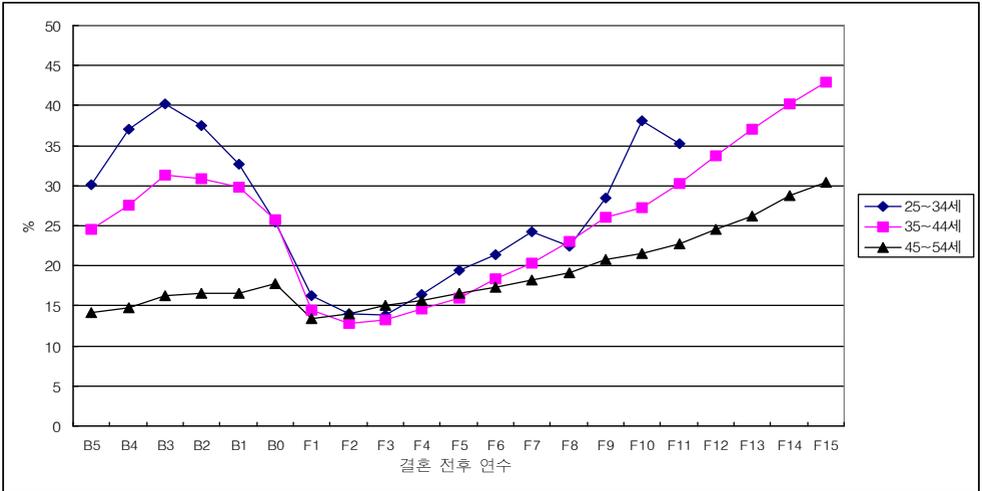
[그림 4]를 보면 25~34세의 여성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 1년 전(B1)과 1년 후(F1)를 비교할 때 35~44세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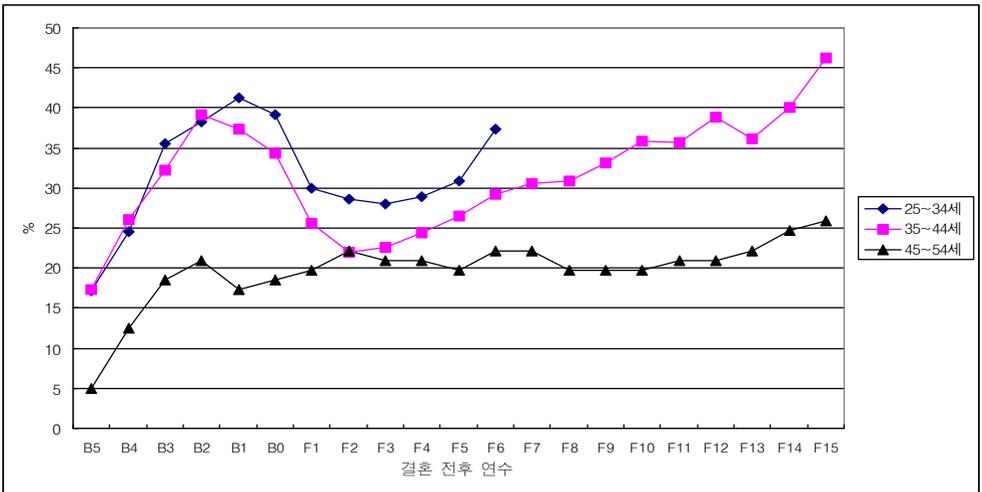


연령별 취업률의 변화를 학력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가 [그림 5]와 [그림 6]이다. 두 그림을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나 모두 과거세대보다는 최근 세대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결혼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저학력자뿐 아니라 고학력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아직도 결혼은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고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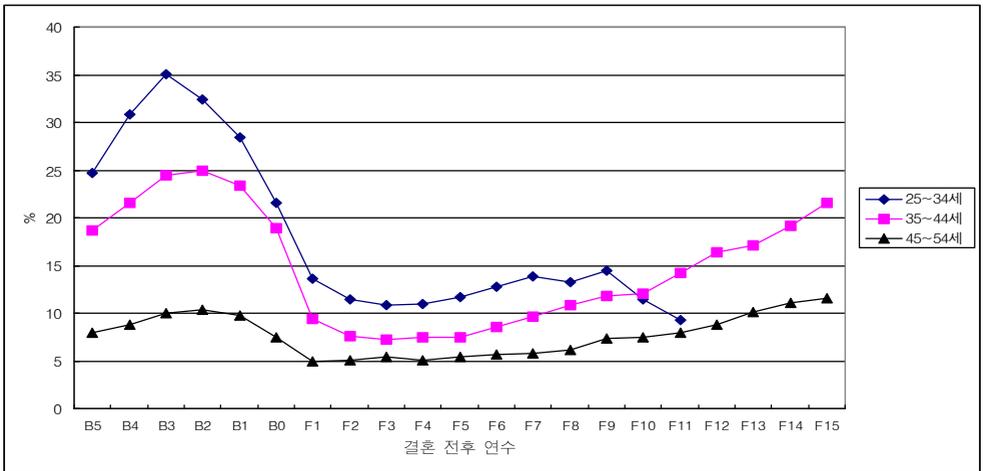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문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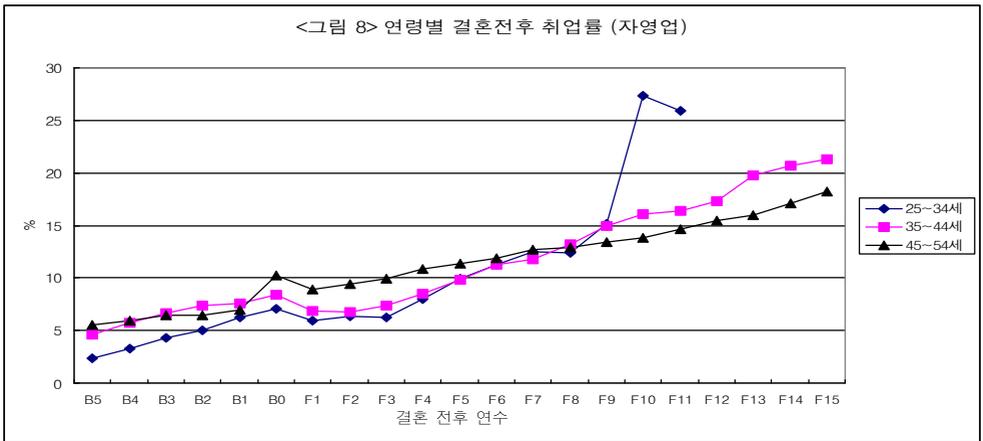


[그림 7]과 [그림 8]은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두 그래프를 통하여 우리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률이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 비율은 최근 세대일 경우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결혼 후 취업과 분리되는 현상은 예상대로 임금근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그림 8) 연령별 결혼 전후 취업률(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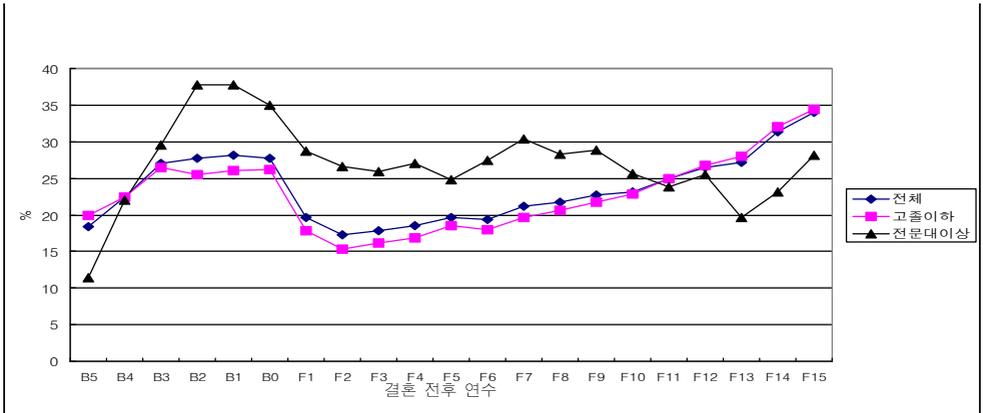


지금까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취업률 비교를 통하여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결혼후 취업률 하락이 출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균적인 여성은 결혼 다음해에 출산을 한다. 따라서 결혼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은 출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순수한 결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산이 결혼 다음해가 아닌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위의 그래프들을 만들어 보았다.5) 전체 표본에 대

5) 좀더 명백한 결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산이 결혼 3년 혹은 4년 후 등인 여성들을 대상

한 결과는 [그림 9]에 제시되며 취업형태별 그래프는 부록에 제시된다. 이들 그림을 보면 앞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영업으로의 취업을 제외하면 결혼직후 여성의 취업률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하락시키는 순수한 결혼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9]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전체) : 출산이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 IV. 출산을 중심으로 한 취업률 변화

여기서는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과 마찬가지로 출산 5년 전(B5)부터 출산 15년 후(F15)까지 20년간의 취업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며 학력, 연령(세대), 임금근로,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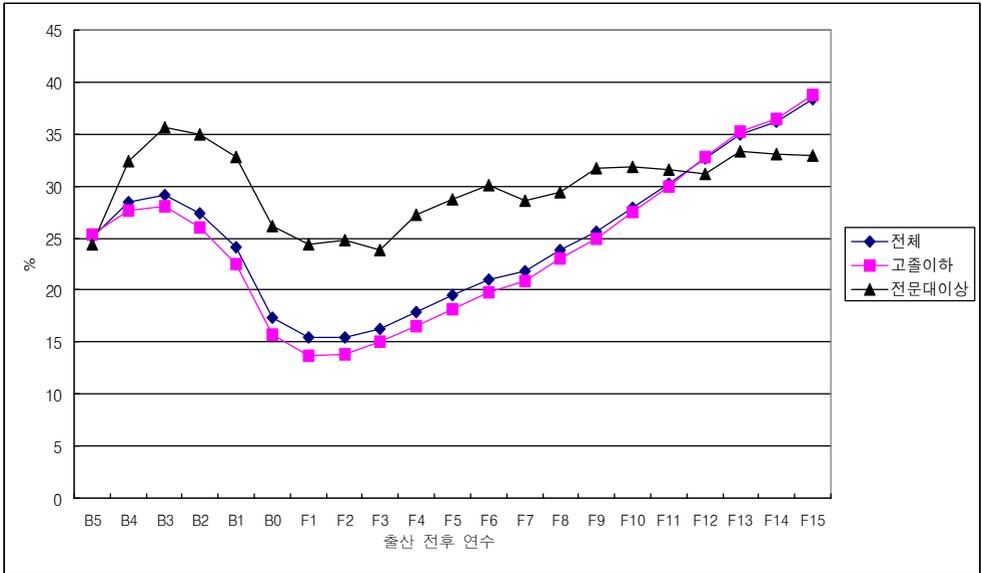
으로 취업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약 50% 이상이 결혼 1~2년 후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결혼 3년 혹은 4년 후 출산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표본이 너무 작아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더 심각한 문제로서 표본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후 상당시간 동안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출산을 지연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은 무작위표본(random sample)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들에게 결혼이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출산이 결혼 다음해가 아닌 여성만을 대상으로 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물론 이 경우도 표본선택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출산과 결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표본보다는 덜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학력 및 취업형태별 출산 전후의 취업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림 10]을 보면 출산 3년 전(B3)에 취업률이 정점에 이르고 그 후 하락하여 출산 후 3년(F3)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후 점차 취업률이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이나 저학력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 후 11년(F11)이 지난 다음에야 출산 전의 최고 취업률(B2)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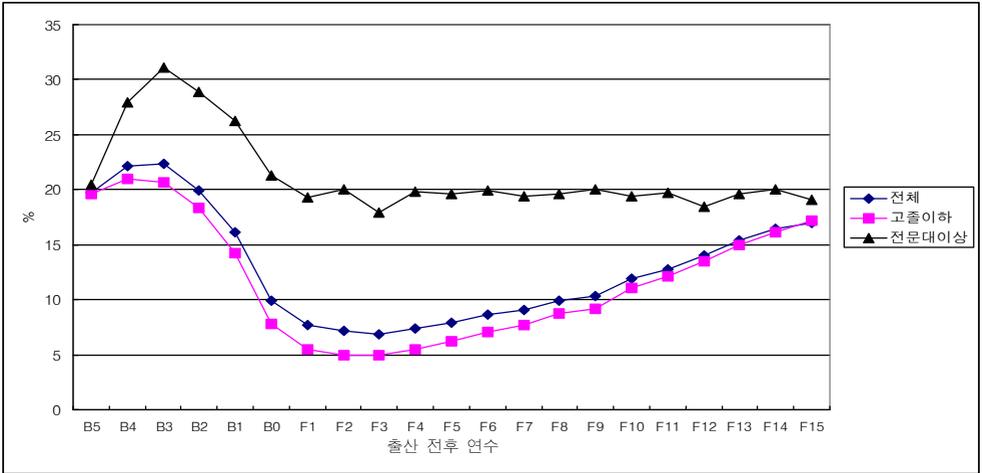
출산 3년 전부터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은 대부분 출산 1년 전에 결혼하고 따라서 그 전년부터 결혼준비로 취업률이 하락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떤 이유든 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결혼을 대안으로 생각할 경우 결혼 이전부터 출산까지 계속해서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0] 학력별 출산 전후 취업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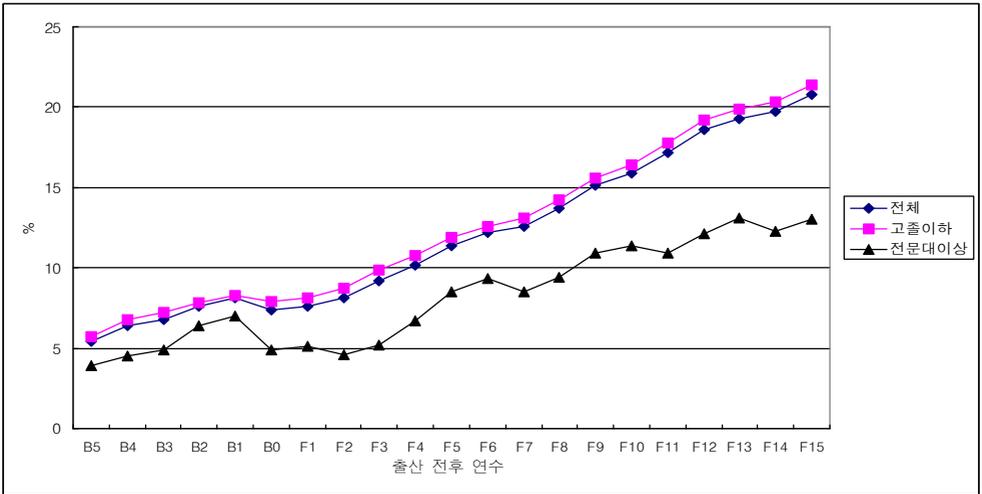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출산이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가 아래 [그림 11]과 [그림 12]이다.

(그림 11) 학력별 출산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그림 12) 학력별 출산 전후 취업률(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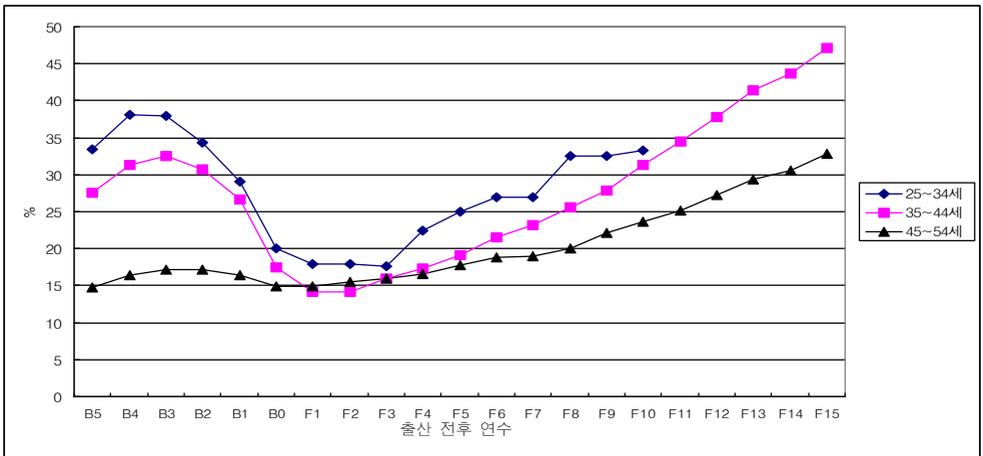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결혼과 마찬가지로 출산은 취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의 경우에는 출산 당시(B0) 다소 취업률이 하락하다가 곧바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출산의 부정적인 효과도 임금근로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결혼 자체는 자영업으로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출산 자체는 취업률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연령별 출산 전후의 취업률

이제 출산 전후의 여성의 취업률 변화가 연령별(세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나 과거 세대에서 최근 세대로 오면서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는 과연 출산의 부정적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13]을 보면 25~34세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출산 1년 전(B1)과 1년 후(F1)를 비교할 때 35~44세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출산 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5~54세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결과적으로 출산이 여성 취업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근 세대에도 약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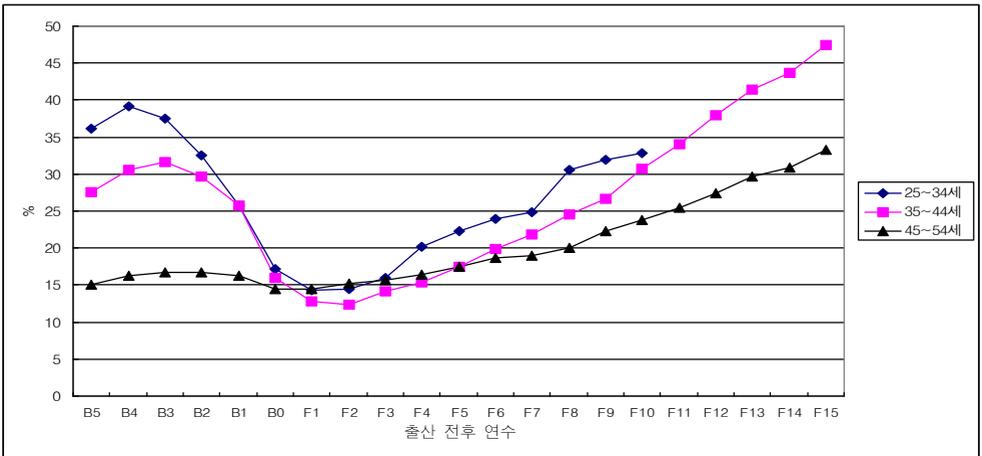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앞서 과거 세대의 높은 자영업 가능성과 최근 세대의 높은 육아비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영업 가능성은 아래 임금근로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 16]에서도 최근 세대가 출산 후 취업률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최근 세대의 높은 육아비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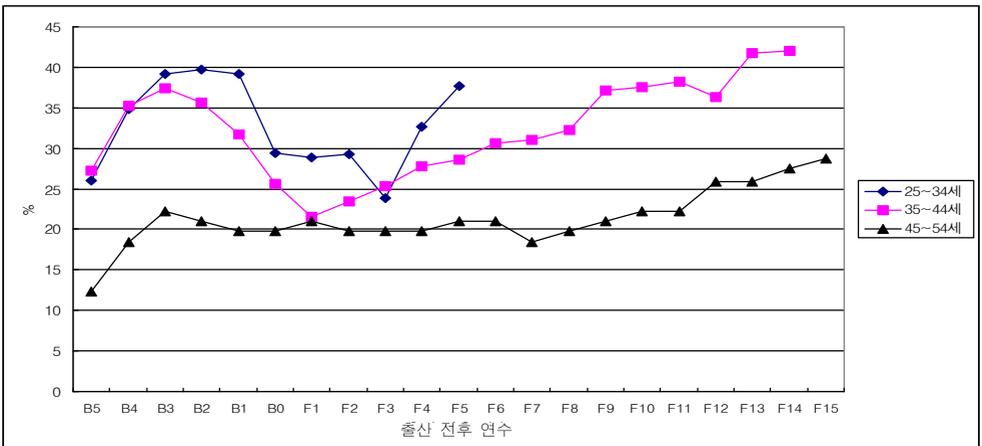
성이 유력하다. 즉 현재 노년세대가 출산할 당시에는 가족구조가 상대적으로 대가족제였고 따라서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비용도 낮았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 세대는 핵가족 중심이며 따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공공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탁아비용도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추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연령별 취업률의 변화를 학력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가 [그림 14]와 [그림 15]이다.

[그림 14]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고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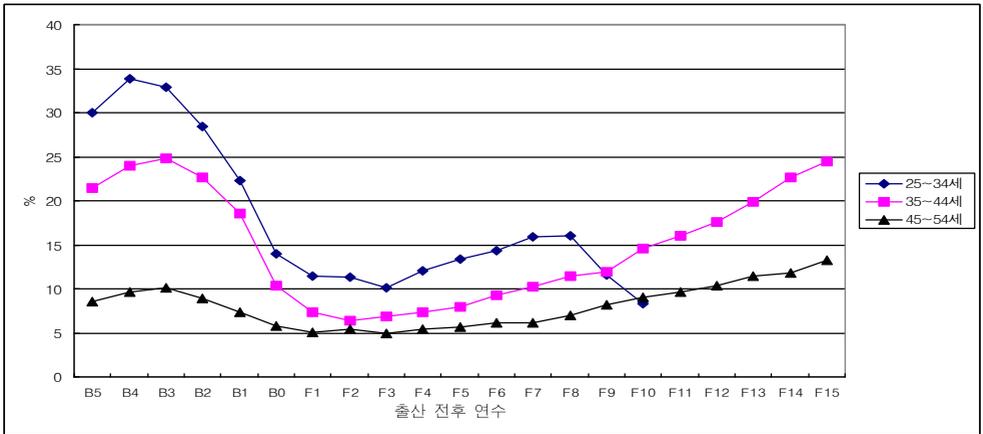
[그림 15]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전문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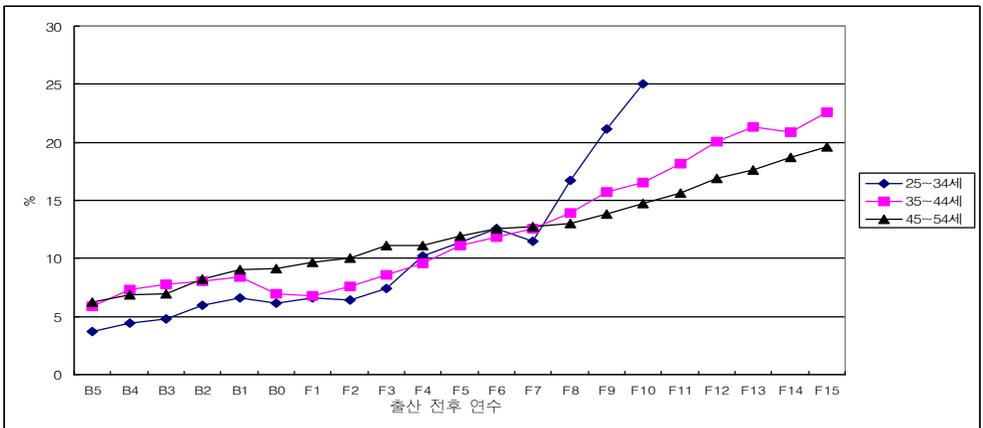
위 그림을 보면 출산을 중심으로 할 때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나 모두 과거 세대보다는 최근 세대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출산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저학력자뿐 아니라 고학력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취업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 16)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그림 17) 연령별 출산 전후 취업률(자영업)



위 그림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취업률이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며 자영업 비율은 최근 세

대일 경우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출산 후 취업과 분리되는 현상은 예상대로 임금근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보육비용의 상대적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V.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생애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지금까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결혼과 출산 전후의 노동시장 경험, 즉 취업 여부가 생애취업률과 현재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ckman and Willis(1979), Shapiro and Mott(1994)는 한 기간의 경제활동참여가 미래의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주장이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1. 현재 취업 및 출산 후 취업 경력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이 출산 후의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다. <표 5>는 세계의 회귀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인데 첫번째는 현재의 취업 여부를, 두번째는 출산과 현재 사이의 취업기간을, 세번째는 출산 후 현재까지의 총기간 중 취업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첫번째 모형은 Probit으로, 나머지 두 모형은 OLS로 추정되어졌다.

세 가지 추정 모형은 Shapiro and Mott(1994)가 사용한 모형과 같으며 통제변수도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같게 유지하였다. 다만 Shapiro and Mott(1994)가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만을 변수로 포함시킨 것에 반하여 본 모형에서는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추가로 변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6)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와 함께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 대부분 1년 간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간의 다중공산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들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결혼 후 취업과 출산 후 취업간의 상관계수가 0.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 전 취업과 출산 전 취업이 0.73으로, 나머지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0.35에서 0.65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공산성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크게 해 유의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상당기간이 지난 후 출산한 여성들만 별도로 추

출산을 통제한 후에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가 여성의 출산 후의 취업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5>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 (전체)

변 수	종 속 변 수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취업기간	출산 후 취업비중
결혼 직전 취업	0.388 (0.082)**	0.155 (0.266)	0.065 (0.013)**
결혼 직후 취업	-0.004 (0.118)	0.527 (0.401)	0.032 (0.020)
출산 직전 취업	0.497 (0.098)**	0.613 (0.328)*	0.046 (0.017)**
출산 직후 취업	1.133 (0.116)**	7.950 (0.381)**	0.625 (0.019)**
35~44세	0.305 (0.084)**	0.425 (0.263)	0.065 (0.011)**
45~54세	-0.031 (0.130)	0.163 (0.431)	0.062 (0.013)**
첫아이 연령	0.022 (0.007)**	-	-
10세 이하 자녀수	-0.366 (0.078)**	-	-
자녀수	-	0.364 (0.124)**	-0.001 (0.006)
근로가능기간	-	0.237 (0.023)**	-
초등학교 졸업	0.263 (0.079)**	2.059 (0.270)**	0.089 (0.013)**
중학교 졸업	0.199 (0.065)**	0.475 (0.223)**	0.036 (0.011)**
전문대 졸업	-0.158 (0.127)	-0.513 (0.377)	-0.023 (0.019)
4년제 대학 졸업	0.022 (0.087)	-0.268 (0.275)	0.025 (0.014)*
남편 존재	-0.399 (0.090)**	-0.997 (0.308)**	-0.064 (0.016)**
절편	-0.596 (0.151)**	-1.442 (0.405)**	0.117 (0.020)**
R-square	-1765.196	0.451	0.570
표 본 수	3,242	3,242	3,242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로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R-square 대신 log-likelihood값이 제시됨.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우선 <표 5>에 나타난 현재 취업확률 모형을 보면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현재의 취업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혼 후의 취업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지만 결혼 전의 취업은 현재 취업확률을 높이고 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정하는 것은 각주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sampl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다중공산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또한 결혼 전후의 취업변수를 제외하는 것은 omitted variable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와 독립적으로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위배된다. 다행히 추정 결과에서 결혼 전 취업과 출산 후 취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산성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결혼 후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혼 후와 출산전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결혼 후의 효과가 출산 전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10세 이하의 자녀가 적을수록, 남편이 없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예상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출산 후 취업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보면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 직전과 직후에 취업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무려 출산 후 취업기간이 약 8.5년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Shapiro and Mott(1994)가 추정한 약 5년과 비교하면 월등히 긴 기간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전후의 취업유지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생애취업기간을 늘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취업비중(출산 후 취업기간/근로가능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역시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이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혼 직전 취업 경험도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출산 전후 취업 경험이 있는, 즉 노동시장에 강한 귀착력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현재 취업률과 출산 후 취업기간 및 취업비중 모두에 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은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만큼은 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취업확률과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얻어진 이러한 결과는 출산만을 고려한 Shapiro and Mott(1994)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5>는 연령층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세대의 차이를 통제하려 했다. 만약 더미 변수가 이러한 세대차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위의 결과는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표본수가 많은 35~44세를 대상으로 위의 세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7) 앞서 지적한 대로 1998년 자료를 사용할 경우 IMF 직후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현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9년 자료를 가지고 현재 취업확률 모형을 재추정하여 보았다(부표 3에 결과 제시). 1999년 자료를 사용할 경우 3,242명에서 2,807명으로 표본이 약 13.5% 감소하나 추정 결과는 1998년 자료를 사용할 때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35~44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잠정적인 하나 다른 해를 분석하여도 본 연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산 후 취업기간이나 취업비중은 누적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표본 손실이 무작위(random)하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는 <표 5>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결혼 전의 취업 경험이 출산 후 취업기간을 늘리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과 독립적으로,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이 여성의 출산 후 취업 경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 6>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 (35~44세)

변 수	종 속 변 수		
	현재 취업 확률	출산 후 취업기간	출산 후 취업비중
결혼 직전 취업	0.268 (0.120)**	0.583 (0.320)*	0.044 (0.021)**
결혼 직후 취업	-0.128 (0.167)	0.436 (0.450)	0.000 (0.030)
출산 직전 취업	0.558 (0.141)**	0.581 (0.378)	0.070 (0.025)**
출산 직후 취업	1.068 (0.172)**	7.221 (0.447)**	0.613 (0.030)**
첫아이 연령	0.040 (0.012)**	-	-
10세 이하 자녀수	-0.239 (0.101)**	-	-
자녀수	-	-0.075 (0.180)	-0.005 (0.011)
근로가능기간	-	0.350 (0.025)**	-
초등학교 졸업	0.090 (0.127)	0.756 (0.350)**	0.057 (0.022)**
중학교 졸업	0.223 (0.090)**	0.540 (0.249)**	0.045 (0.016)**
전문대 졸업	-0.147 (0.178)	-0.051 (0.451)	-0.040 (0.030)
4년제 대학 졸업	-0.052 (0.126)	0.284 (0.330)	0.029 (0.022)
남편 존재	-0.427 (0.142)**	-1.124 (0.385)**	-0.098 (0.025)**
절편	-0.507 (0.251)**	-1.487 (0.567)**	0.230 (0.033)**
R-square	-830.409	0.456	0.505
표 본 수	1,428	1,428	1,428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로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으므로 따라서 R-square 대신 log-likelihood 값이 제시됨.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 2. 현재 임금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강한 귀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다른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임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apiro and Mott(1994)의 모형에 결혼 전후의 취업 여부를 추가로 포함시켜 현재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다.

<표 7>의 모형 1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를 제외한 모형으로 예상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총근로경험이 많을수록, 현직장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2는 모형 1에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출산 직후 취업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Shapiro and Mott(1994)의 결과는 서로 상이한 것 같지만 또 공통이라 말할 수도 있다.

<표 7> 현재 시간당 로그임금 대한 추정 결과 (전체)

변 수	모형 1	모형 2
결혼 직전 취업	-	0.035 (0.063)
결혼 직후 취업	-	-0.061 (0.082)
출산 직전 취업	-	-0.015 (0.073)
출산 직후 취업	-	0.248 (0.081)**
35~44세	0.053 (0.058)	0.116 (0.061)*
45~54세	0.131 (0.070)*	0.214 (0.075)**
초등학교 졸업	-0.403 (0.061)**	-0.389 (0.061)**
중학교 졸업	-0.340 (0.053)**	-0.333 (0.053)**
전문대 졸업	0.512 (0.102)**	0.441 (0.103)**
4년제 대학 졸업	0.550 (0.066)**	0.491 (0.068)**
출산 후 총근로기간	0.022 (0.013)*	0.019 (0.013)
출산 후 총근로기간의 제곱	-0.001 (0.001)	-0.001 (0.0006)*
근속년수	0.052 (0.011)**	0.047 (0.011)**
근속년수의 제곱	-0.002 (0.001)**	-0.001 (0.0005)**
절편	0.175 (0.059)**	0.109 (0.067)
R-square	0.386	0.399
표 본 수	660	660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Shapiro and Mott(1994)의 추정 결과에서는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출산 후 총근로기간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출산 전후에 일한 여성이 출산 후 총근로기간이 백인의 경우 약 5년 정도 길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산 전후에 취업한 백인 여성의 경우 현재 약 19%의 임금프리미엄을 가진다고 결론 짓고 있다. 즉 Shapiro and Mott(1994)는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가 출산 후 총근로기간의 증가를 통해 현재 임금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표 7>의 결과는 출산 후의 취업이 직접적으로 현재 임금을 약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 변수가 포함됨으로써 출산 후 총근로기간은 현재 임금증가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 여부 변수들이 출산 후 총근로기간의 효과를 대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의 현재 취업률에 대한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5~44세만을 대상으로 시간당 로그임금함수를 다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현재 시간당 로그임금 대한 추정 결과 (35~44세)

변 수	모형 1	모형 2
결혼 직전 취업	-	0.108 (0.081)
결혼 직후 취업	-	-0.144 (0.108)
출산 직전 취업	-	-0.056 (0.090)
출산 직후 취업	-	0.358 (0.111)**
초등학교 졸업	-0.322 (0.090)**	-0.289 (0.091)**
중학교 졸업	-0.358 (0.063)**	-0.350 (0.063)**
전문대 졸업	0.297 (0.138)**	0.209 (0.140)
4년제 대학 졸업	0.459 (0.088)**	0.382 (0.091)**
출산 후 총근로년수	0.046 (0.023)**	0.042 (0.023)*
출산 후 총근로년수의 제곱	-0.002 (0.001)*	-0.002 (0.001)*
근속년수	0.045 (0.019)**	0.042 (0.019)**
근속년수의 제곱	-0.001 (0.001)	-0.001 (0.001)
절편	0.161 (0.070)**	0.148 (0.073)**
R-square	0.417	0.440
표 본 수	334	334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제,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로 임.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위 <표 8>의 결과는 <표 7>의 결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출산 후

의 취업이 현재 임금을 약 3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출산 후 총근로 기간 역시 현재 임금을 1년에 약 4%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44세를 대상으로 한 <표 6>의 결과를 보면 결혼 전 취업한 여성과, 출산 후 취업한 여성은 출산 후 총근로기간을 각각 0.583년, 7.221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전과 출산 후에 일한 여성은 현재 약 56%의 임금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영향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얻어진 Shapiro and Mott(1994)의 추정 결과와 비교할 때 월등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시계열적 정보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결혼과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았으며,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생애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취업형태별로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Shapiro and Mott(1994) 등이 사용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표본에서 결혼과 출산은 여성 취업률을 각각 11.2%point, 8.7%point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세대(25~34세)일수록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률 자체는 높지만 결혼 후, 출산 후의 취업률 하락은 이전 세대 못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결혼 전에 취업한 사람이 결혼 후 취업할 확률이 결혼 전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8) 이 수치는 출산 후 취업의 계수인 0.358과 결혼 전 취업과 출산 후 취업이 출산 후 총근로기간에 미친 7.804년이 현재 임금에 미친 영향인  $0.042 \times 7.804 - 0.002 \times 7.8042$ 의 효과를 합친 결과이다.

결혼 후 취업할 확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지속성은 출산에서도 적용된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 전후의 취업 지속성이 젊은 층(25~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출산 전후의 취업 지속성은 오히려 45~54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여성의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률의 변화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나 결혼(출산)전부터 취업률이 하락하여 결혼(출산) 직후 급강하고 결혼(출산) 3~4년 후부터 취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모든 학력에 있어 결혼(출산)은 임금근로자에게는 취업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결혼(출산) 직후 다소 취업률이 하락하다가 곧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임금근로로의 취업률과 자영업으로의 취업률은 결혼(출산) 1~2년 후부터 역전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결혼(출산) 직후 취업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취업률이 자영업자로의 취업률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자영업이 열등한 취업형태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5. 여성의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률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25~34세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으나 결혼(출산) 후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최근 세대인 25~34세 여성이 결혼(출산)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저학력자뿐 아니라 고학력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아직도 결혼과 출산은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출산 전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현재 취업률과 출산 후 취업기간 및 취업비중 모두에 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은 현재 취업확률과 출산 후 취업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전후의 취업 경험과 별개로 결혼 전후의 취업 경험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후 취업 경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출산 후의 취업은 현재 임금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5~44세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결혼 전의 취업도 총근로경험을 연장시킴으로써 간

접적으로 현재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우리에게 명확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최근 세대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의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 직후 여성의 취업률 하락이 공급측의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측의 원인 때문인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최근 중앙일보 기사(2002년 9월 10일, 10월 4일)를 비추어 보면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루었는데 한 경우는 매우 능력있는 여성이 변호사와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포기한 사례를 다루면서 회사가 그 여직원을 붙잡았지만 “입사 때부터 결혼하면 그만둘 생각이었다”는 답변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고시 붙고 자격증을 따도 여자는 취업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과 취업하더라도 여직원에 대한 승진규정이 없어 남자 직원보다 훨씬 늦게 승진하는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사회분위기를 다루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결혼 후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 모두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과 출산 후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출산 후 11년이 지나야 출산 전의 최고 취업률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선진국 기혼여성들보다 낮은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출산 후 일(work)은 하지 않지만 취업(employment)은 계속 유지하는 여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Klerman and Leibowitz(1994) 등이 밝혔으며 이는 기혼여성들이 출산시 휴가,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경향은 결국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감소를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기혼여성들이 출산시 휴가,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을 많이 사용하여 취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의 법적 대상과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출산했을 때 기업들이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을 허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출산 후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높은 탁아비용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공공 탁아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프리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남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김순미·이경희·성지미,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녀보육의 형태와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 김우영·김응규,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제23권 제3호, 2001.
- 성지미·차은영,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2001.
- 안주엽, 「경기변동과 경제활동참가율」,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1.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황수경,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1, 한국노동연구원, 2002.

Barrow, L, “An Analysis of Women's Return to Work Decision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37 (3), 1999.

Blanchflower, D., “Self-employment in OECD countries”, *Labour Economics* 7, 2000.

Heckman, J. and Willis, R., “Reply to Mincer and Ofeck”,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 1979.

- Klerman, J. A. and Leibowitz, A., “The Work-Employment Distinction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 (2), 1994.
- Nakamura, A. and Nakamura, M., “An Event Analysis of Female Labor Supply”, *Research in Labor Economics* 15, 1996.
- Shapiro, D. and Mott, F., “Long-Term Employment and Earnings of Women in Relation to Employment Behavior Surrounding the First Birth”,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 (2), 1994.
- Shaw, K., “The Persistence of Female Labor Supply: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 (2), 1994.

## 부 록

〈부표 1〉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25~34세)

변 수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취업기간	출산 후 취업비중
결혼전 취업	0.510 (0.186)**	0.199 (0.159)	0.026 (0.019)
결혼후 취업	-0.115 (0.242)	0.268 (0.245)	0.018 (0.029)
출산전 취업	0.808 (0.208)**	0.418 (0.195)**	0.133 (0.023)**
출산후 취업	1.632 (0.234)**	2.877 (0.231)**	0.721 (0.027)**
첫아이 연령	0.147 (0.024)**	-	-
10세 이하 자녀수	0.127 (0.337)	-	-
자녀수	-	-0.162 (0.097)*	-0.006 (0.010)
근로가능기간	-	0.296 (0.020)**	-
초등학교 졸업	-0.041 (0.481)	0.642 (0.409)	-0.000 (0.047)
중학교 졸업	0.005 (0.207)	0.051 (0.182)	0.023 (0.021)
전문대 졸업	0.116 (0.225)	-0.090 (0.168)	-0.001 (0.019)
4년제 대학 졸업	0.396 (0.174)**	0.093 (0.139)	0.024 (0.016)
남편 존재	0.090 (0.465)	-0.269 (0.400)	-0.007 (0.047)
절편	-2.662 (0.633)**	-0.596 (0.426)	0.043 (0.050)
R-square	-271.330	0.587	0.812
표 본 수	816	816	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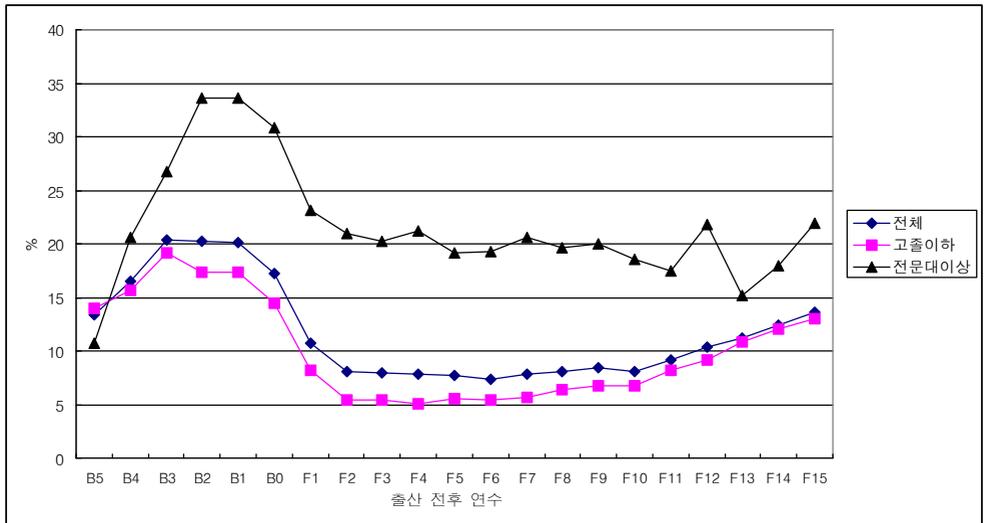
〈부표 2〉 현재 취업확률, 출산 후 현재까지의 취업기간, 취업비중에 대한 추정 결과(45~54세)

변 수	현재 취업 확률	출산 후 취업기간	출산 후 취업비중
결혼전 취업	0.417 (0.151)**	1.468 (0.678)**	0.096 (0.028)**
결혼후 취업	0.295 (0.244)	2.553 (1.121)**	0.104 (0.046)**
출산전 취업	-0.042 (0.203)	-1.851 (0.924)**	-0.082 (0.038)**
출산후 취업	0.982 (0.224)**	13.603 (0.999)**	0.578 (0.041)**
첫아이 연령	-0.023 (0.011)**	-	-
10세 이하 자녀수	-0.336 (0.219)	-	-
자녀수		0.586 (0.237)**	0.007 (0.009)
근로가능기간		0.095 (0.054)*	-
초등학교 졸업	0.374 (0.110)**	2.672 (0.521)**	0.102 (0.021)**
중학교 졸업	0.107 (0.112)	0.442 (0.528)	0.017 (0.022)
전문대 졸업	-0.405 (0.408)	-1.145 (1.749)	-0.063 (0.072)
4년제 대학 졸업	-0.258 (0.188)	-0.616 (0.837)	-0.018 (0.034)
남편 존재	-0.370 (0.123)**	-0.899 (0.572)	-0.035 (0.024)
절편	0.511 (0.289)*	0.306 (1.305)	0.151 (0.033)**
R-square	-609.838	0.477	0.471
표 본 수	992	992	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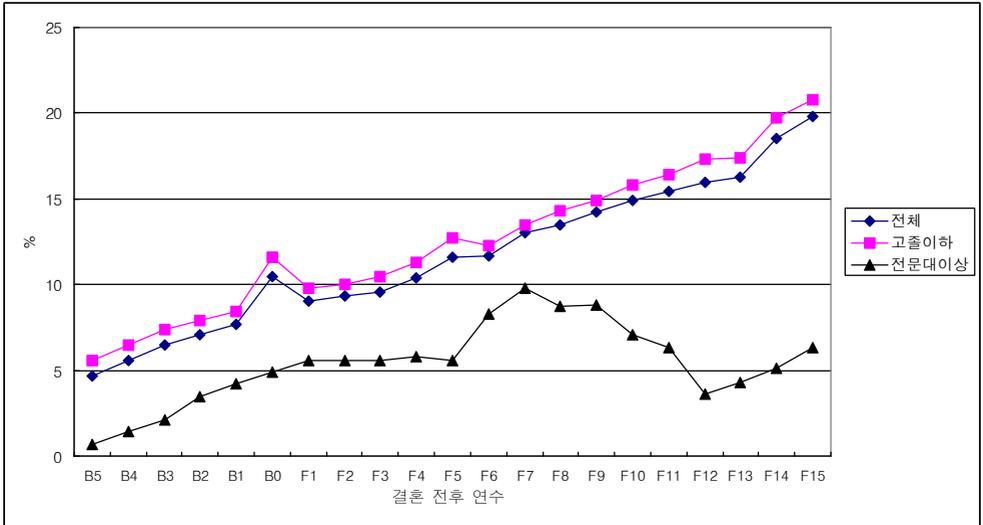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 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 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R-square 대신 log-likelihood값이 제시됨.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그림 1)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임금근로) : 출산이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림 2] 학력별 결혼 전후 취업률(자영업) : 출산이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부표 3> 현재 취업확률에 대한 추정 결과 (1999년 자료)

변 수	현재 취업확률	
	전 체	35~44세
결혼 직전 취업	0.341(0.082)**	0.443(0.126)**
결혼 직후 취업	0.064(0.124)	-0.018(0.180)
출산 직전 취업	0.157(0.101)	0.118(0.149)
출산 직후 취업	0.778(0.119)**	0.723(0.182)**
35~44세	0.294(0.083)**	-
45~54세	-0.063(0.134)	-
첫아이 연령	0.018(0.007)**	0.026(0.012)**
10세 이하 자녀수	-0.212(0.081)**	-0.147(0.108)
초등학교 졸업	0.262(0.082)**	0.215(0.134)
중학교 졸업	0.188(0.068)**	0.244(0.097)**
전문대 졸업	-0.260(0.122)**	-0.261(0.180)
4년제 대학 졸업	-0.121(0.090)	-0.046(0.134)
남편 존재	-0.368(0.099)**	-0.435(0.158)**
절편	-0.311(0.157)**	-0.113(0.273)
log-likelihood	-1716.406	-755.301
표 본 수	2,807	1,212

주 : 결혼 직전은 결혼한 전 해, 결혼 직후는 결혼한 다음 해를 말하며, 출산도 마찬가지임.  
 현재 취업확률 모형은 Probit으로 추정되었음.  
 \* 유의수준 10%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abstract

---

## **A Dynamic Analysis of the Female Employment Rate: The Role of Marriage and Child Birth**

Woo-Yung Kim

In order to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Korea, we have to understand why it is low compared to, for example, the OECD average. This study employs a dynamic approach to analyze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Korea, with special focus on marriage and child birth. In particular, this study: (1) analyzes the impact of marriage and child birth on female employment rate using various classifications, (2) identifies the effect of marriage independent from child birth on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3) examines whether employment experiences in the period surrounding marriage and child birth affect current labor market status. The obtained results in this study deliver us a clear message. That is, young women have higher employment rate than older women,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young women are still separated from employment following marriage and child birth.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Korean women who worked before and after marriage and child birth have longer lifetime work experience and larger wage premium than American counterpart. Therefore, if a system which prevents women from being separated from jobs following marriage and child birth is introduced, then it is possible that the female employment in Korea can grow fast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it will certainly help reduce the male-female earnings gap in Korea.

Key Words : Female Employment Rate, Employment Persistence, Dynamic Analysis